

북스

Books

알타회담, 전쟁 기간만 1년 늘렸다

정상회담

레이놀즈 지음·이종인 옮김

‘정상회담(Summit)’이라는 용어는 영국 윈스턴 처칠이 처음 사용했다. 1950년대 에베레스트산 등반 열기가 불면서 ‘정상’이라는 말이 오르내렸고, 처칠은 이를 외교에 가져다 썼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레이놀즈 교수는 ‘정상회담’을 바코 6번의 만남’에서 20세기에 있었던 현대적 의미의 정상회담을 면밀히 분석, 제능과 자신감으로 똘똘 국가 원수들이 만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펼쳤던 세기의 대결을 재구성했다.

저자가 주목한 세계를 움직인 6대 정상회담은 2차대전 발발 위기에 있던 1938년 영국과 독일의 윈스턴 처칠, 2차 대전을 빨리 끝내려 한 미국, 소련, 영국의 1945년 알타 회담,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이 1961년 빈, 1972년 모스크바, 1985년 제네바에서 연 3차례의 회담, 중동 평화를 놓고 미국이 주선한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우선,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윈스턴 회담은 민주주의가 독재자에 굴복한 ‘실존적 외교’의 대명사로 남았다.

저자는 체임벌린이 전문 외교가를 무시하고 통역도 대동하지 않은 채 아마추어 외교를 펼친 나머지 히틀러에게 기만당했다고 지적한다.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의 알타 회담은 2차대전을 평화롭게 종결짓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히틀러 체제를 구제하고 전쟁을 1년간 지연시키는 등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캐네디와 후르쇼프의 빈 정상회담은 처음엔 탐색



알타의 세 정상. 1945년 2월9일 회담중에 촬영된 것으로 건강이 악화된 루스벨트(앞줄 가운데)의 모습을 보여준다. 앞좌석에 처칠(맨 왼쪽), 스탈린이 앉았었고 세 정상 뒤에 각각 외무장관이 서 있다.

전을 벌이다 이번 논쟁만 벌인 끝에 쿠바 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베트남 참전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불러왔다.

반면 ‘성공적인 회담’으로 꼽힌 것은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정상은 보좌관들의 팀워크를 활용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끈기 있게 대화를 지속해 다른 실수들을 만회하고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이끌어냈다.

저자는 무엇보다 회담에 임한 주인공들 자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한다. 지미 카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심리적 장벽을 깨고 평화라는 개념을 현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관리함으로써 합의의 유도를 했다.

스탈린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게 해 놓고 적당한 순간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능숙한 협상가였고, 처칠은 폭포수 같은 언변으로 프랑

스와 독일 배상금 문제에 대해 양보를 이끌어냈다. 또 저자는 회담의 성패는 탁상에서 벌인 과정 못지않게 실전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2003년 토니 블러어 영국 총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 결의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약속받았다고 믿었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자국 내 보수적 여론에 휘둘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상회담의 3단계 절차인 준비, 협상, 실천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체, 개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상회담 개설서’인 이 책은 정치인이나 외교관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책과함께·2만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백서 ‘웰에이징’

참 늙음은 자연 순음

‘웰에이징(Wellaging)’이란 생명의 여정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의 가치를 높여 가는 것이 참다운 늙음을 말한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이 늙어가면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담은 건강백서 ‘웰에이징’을 펴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해 온 저자는 100세 청춘을 준비하는 생활습관 개혁으로 몸을 움직이기, 환경에 적응하기, 성실하고 정확하게 살기, 감정을 느끼기, 생각하기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생각의나무·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열애

김별아 지음

조선 청년 박열과 일본 여인 가네코의 사랑

김씨가 이번이 펴낸 장편 소설 ‘열애’는 국경과 사랑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을 쉽게 읽힌다. 특히 글의 중반부터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와 폭탄 투척을 기도했다는 죄명으로 불참한 후 벌어지는 재판 과정, 그리고 후미코의 안타까운 죽음까지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확대당한 유년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일본인 여성 후미코는 어느 날 조선 청년 박열의 시 ‘개새끼로소이다’를 접하며 그를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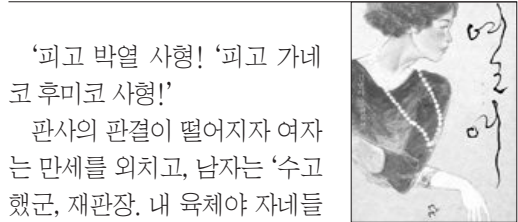
박열은 무정부주의자이자 허무주의자였다. 후미코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박열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생활방식 속에

서 지금껏 걸고잡지 못했던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 속에서 자유롭고 용맹해지고 싶었다.

연인 관계가 된 두 사람은 동지로서 거사를 함께 계획하고 행동했다. 후미코에게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지만 그녀는 법정에서도 당당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책 절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장황해 지루한 감이 느껴지는 건 아쉽다.

책을 읽고 두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면 김씨가 소설을 쓰면서 참고했다는 박열 평전(김삼웅 지음·가람기획 펴냄), ‘가네코 후미코’(야마다 소지 지음·산처럼 펴냄) 등을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문학의 문학·1만1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피고 박열 사형! 피고 가네코 후미코 사형!’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여자는 만세를 외치고, 남자는 ‘수고했군, 재판장. 내 유체가 자녀를 마음대로 죽이려거든 죽여라. 그러나 나의 정신이야 어찌 할 것인가’라 외쳤다. 1926년 3월 25일 뱃머리 흘날리던 어느날 일본 법정 모습이다.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을 새롭게 해석해낸 소설을 펴내고 있는 ‘미실’의 작가 김별아가 이번에는 일본 천황가 폭탄 투척 사건의 조선 청년 박열(1902~1974)과 그를 사랑한 일본인 연인 가네코 후미코(1903~1926)를 불러냈다.

새책

▲노란 불빛의 서점=책 판매경력 17년, 극진한 서점 마니아 루이스 버즈비가 서점이 갖는 매력을 조목조목 짚는다. 서적판매업의 역사, 독자편력의 추억과 출판업의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책과 서점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살기에 안성맞춤인 도시를 찾는 것만 같았다”는 저자의 서점예찬론이 인상 깊다. 〈문학동네·1만1천원〉

▲꿈의 왕국을 세워라=‘허준’, ‘대장금’, ‘상도’, ‘이산’ 등을 연출한 ‘대한민국 사극의 지존’ 이병훈 프로듀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프로듀서로 우뚝 선 이씨가 자신의 제작 현장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한편의 드라마가 탄생하기까지 연출가가 겪는 험난한 과정과 스태프, 작가의 고뇌를 현장감 있게 그렸다. 〈해피타임·1만2천원〉

▲유러피언 드림=‘소유의 종말’ 등을 펴낸 제러미 리프킨의 2004년 작. 저자는 “세계화시대에 더 이상 부유하지 못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막을 내리고,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러피언 드림’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읽었다고 알려진 책. 〈민음사·2만2천원〉

▲식민양의 탄생=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부터 20세기 냉전 시대까지 서양사의 중요 대목들을 살폈다. 서구 중심의 역사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광동과 거리가 멀며, 아시아가 전제적이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바로잡는다. 〈함께읽는책·1만4천800원〉

▲티워=온라인에 소설을 연재하며 주목받은 젊은 작가 배명훈(31)씨의 첫 소설집. 높이 2천408m의 674층 빌딩 ‘빈스토크’ 인구 50만의 도시 국가 빈스토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섯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치, 경제, 외교, 전쟁, 연구, 연애... 작가는 탄탄한 열거를 바탕으로 빈스토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력과 반박이 〈오멜라스·1만원〉

▲에라스무스 격언집=르네상스 최대 지성 에라스무스가 회담과 라틴의 고전에 등장하는 격언, 속담, 경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서양 고전학자 김남우 교수의 충실한 라틴어 원문번역과 만화가 김태권씨의 재미 있는 삽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아모르룬다·1만4천원〉

▲예술가들의 이상심리=시인이자 소설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어린 시절 알파벳마다 각기 다른 색깔과 냄새를 맡았다. 화가 모딜리아니는 난시가 심해서 대상을 실제보다 위 아래로 길게 보았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정유석씨가 작품으로만 만났던 예술가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병리적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했다. 〈램프하우스·1만2천원〉

▲지도로 보는 세계과학사=BC 700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과학 발전사를 총망라한 과학 일대기. 수학·화학·물리학·천문학·의학·전기·광학·상대성이론·유전자이론 등 서양과 동양에서 이룬 과학 발전의 서로 다른 양상을 지도와 그림, 각종 자료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시그마북스·2만5천원〉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 **김행숙**
경매분석사 : **0621351-8240**
H.P 010-7203-1100

구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대가	
광안구	하남동	102	8천7백	6천	
	현상	108	7천	4천4백	
	운남동	주공단지	85	6천3백	4천4백
	현상	112	1억3천5백	9천4백	
	현상	112	1억2천8백	8천9백	
	현상	95	9천8백	6천5백	
	현상	89	1억3천	1억3천	
	현상	74	6천5백	4천6백	
	현상	105	1억3천	7천2백	
	현상	159	2억6백	1억9천8백	
남구	라미네스	85	6천4백	4천4백	
	모아	108	6천	6천	
	현상	82	6천	4천2백	
	현상	105	9천	5천5백	
	현상	74	7천2백	7천2백	
	현상	108	6천5백	8천9백	
	현상	82	6천4백	6천5백	
	현상	102	6천4백	6천5백	
	현상	165	1억2천5백	1억1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서구	신원동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남구	신원동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북구	신원동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현상	112	1억1천	7천2백	
	현상	82	9천3백	6천5백	
	현상	105	9천8백	6천5백	

경매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